

시시노레이간에서의 질그릇 던지기

‘시시노레이간’은 야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승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것은 다카마쓰와 세토 내해를 바라다볼 수 있는 절경뿐만이 아닙니다.

이곳에서는 ‘가와라케나게(질그릇 던지기)’라고 하는 놀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전망대 아래, 울창한 삼림 바로 위에는 와이어에 걸린 금속제 바퀴가 있습니다. 친환경적인 작은 도기 접시를 산등성이에서 바다로 던지는 놀이입니다. 바퀴 안에 들어가든 멀리까지 날아가든 잘 던지면 행운이 찾아오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

이는 미나모토 가문이 야시마 전투(1185년)에서 승리했을 때 무사들이 등근 투구를 공중에 던져 축하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. 바퀴는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조준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. 시시노레이간 주변에서는 지역에서 만든 접시를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으며, 관광객이 던지기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.